

나의 피폭체험기

다나카 쓰네마쓰

● 당시의 생활

당시 나는 31 살, 고마치에 있던 주고쿠 배전 (주)(현 주고쿠 전력 (주))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아내인 미키에와 두 아이(장남 3 세, 장녀 7 개월)와 함께 오테마치에서 집을 빌려 살고 있었습니다. 주고쿠 배전에는 오노미치중학교를 졸업하고 1934 년 2 월에 자동차면허를 취득한 후 입사하였으므로 20 살이나 21 살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주고쿠 배전에서 근무하는 사이에 1937 년 9 월부터 1941 년 1 월, 1942 년 9 월부터 1943 년 11 월에 두 차례에 걸쳐 소집되어 소집과 복직을 되풀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945 년 3 월 말 경, 구레(吳)에 큰 공습이 있어 많은 함상기(艦上機)들이 마치 잠자리처럼 날아가는 것이 잘 보였습니다. 전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파 두었던 것이지만 집 마루 밑에 방공호가 있어 공습 때마다 그리로 숨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둘 다 아직 3 살과 7 개월이 밖에 안 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방공호로 숨어도 한 아이를 보고 있으면 또 한 아이가 밖으로 나가려고 해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오래 못 갈 것 같아 아내와 두 아이를 후타미군 와다무라 무코에타(현 미요시시 무코에타마치)에 있는 아내의 친정으로 피난시킨 것이 3 월 말입니다. 당시는 때가 때인지라 가재도구는 모두 회사 창고에 맡기고 몸만 피난시켰습니다.

처자를 대피시킨 후, 나는 회사 창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 월 초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해서 아내가 피난 가있는 곳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 내가 살고 있던 창고에 폭탄이 떨어져 모든 것이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갈아 입을 옷도 없어서 버렸으므로 와다무라로 돌아가서 유카타(일본전통복)로 셔츠와 팬티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월요일 아침 첫 기차로 출근했습니다. 살 곳이 없어서 버렸기 때문에 회사 동료의 소개로 우시타초에 있는 집에 셋방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피폭할 때까지 생활했습니다.

● 피폭 시의 상황

당시는 경비소집이라고 해서 밤중에 공습경보가 내렸을 경우에는 시청의 명령으로 작업복을 입고 경비를 하러 나가야만 했습니다. 재향군인들이 분담해서 대처하는 것입니다만, 8 월 5 일 밤에도 공습경보가 내렸기 때문에 나는 내가 담당하고 있는 야나기바시다리의 경비에 나섰습니다. 경비를 나간 다음 날은 보통 8 시인 출근시간이 8 시 30 분으로 늦춰집니다만 6 일 아침에는 그런 전달이 없어서 나는 평상시와 같이 8 시에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근무시간까지 30 분이 남아있기에 지하에 있는 직원용 목욕탕에서 어젯밤

입었던 작업복을 빨래하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바닥에 앉아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쪽으로부터 불어 온 폭풍에 날려 뒷벽에 부딪혀 기절해 버렸습니다. 번쩍 눈앞이 빛났던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주변은 먼지 때문에 컴컴했습니다만 4 층인가 5 층 부근에 불길이 보였으므로 하여간 어떻게든 탈출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득 났습니다. 뽀얗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속을 기억을 되살려 손으로 더듬어 가며 아마 이 부근이 계단일 것이라고 생각해 걸어가니 무엇인가가 가로 놓여 있어 그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겨우 건물 근처에 있는 수위실까지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수위실에서는 전차길이 보여 전차길까지 나가니 전차가 철길에서 굴러 민가를 덮친 것을 보고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로 도망쳐야 할까 누군가에게 물어보려 해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피난장소는 회사 남쪽에 있는 1 중 (히로시마현립 히로시마 제 1 중학교)의 운동장이었습니다만, 나는 그것을 못 들었으므로 전차길을 따라 북쪽을 향해 시라카미신사 앞을 오른쪽으로 돌아 다케야마치길을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중, 현여(縣女, 히로시마현립 히로시마 제 1 고등여학교)학교의 담이 폭풍으로 말미암아 도로에 넘어져 있었으며 처녀인지 부인인지 모르겠으나 어떤 여자가 무너진 벽더미에 깔려 목만을 내놓은 채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나 자신도 피를 흘리며 등에는 유리파편이 박혀 피로 범벅이 된 상황이어서 도망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상태였습니다.

그 후 다케야강을 따라 남쪽으로 걸어 미유키바시다리를 향했습니다. 이름은 다케야강이라고 해도 작은 도랑 같은 것이어서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고, 후쿠야의 지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는 도중에는 나 외에도 도망치는 사람을 보지 못 했습니다만 다케야강 건너 맞은 편의 집에서 큰일났다고 하며 집안 정리를 하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몇 시쯤이었던가 잘 모르겠으나 상당히 시간이 흐른 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유키바시다리를 건너기 전에 군 트럭이 왔으므로 그것을 얻어 타고 우지나항에 가서 거기에서 배로 니노시마로 피난갔습니다. 니노시마에는 많은 부상자들이 피난 와 있어 온통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위생병은 있었습니다만 붕대만 감아 주었을 뿐 제대로 치료다운 치료는 받을 수도 없어 등에는 유리파편이 박힌 채였습니다. 마치 정신이 미쳐버린 것 같은 사람, 울부짖는 사람, 그것을 시끄럽다고 화내는 사람, 밤이 되어 사람들이 자고 있는 속을 뛰어다니는 사람, 그런 행동에 대해 화내는 사람 등 시끄러워서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6 일 날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7 일 날 아침 대나무 통에 죽을 받아 매실 장아찌를 하나 넣어서 먹었습니다.

니노시마에서의 식사는 이것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리다가는 죽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군인에게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7 일날 아침에 배로 우지나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다행히도 트럭이 있었으므로 타고 있던 장교에게 「어디에 갑니까?」라고 물으니 「시청에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청까지 좀 태워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타라」고 해서 시청 현관까지 태워다 줘 고맙다는 말을 하고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회사는 시청에서 약간 북쪽으로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회사까지 걸어갔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면식이 있는 직원 2 명이 접수를 맡고 있었으므로 「지금부터 미요시에 있는 처가로 대피한다」라는 말을 하고 주소를 써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미야초, 핫초보리를 지나 우시다초에 있던 기숙사까지 걸어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룻밤을 자고 8 일에 도사카역에서 기차를 타고 처자가 대피하고 있던 와다무라를 향했습니다. 아내가 걱정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서둘렀습니다. 도중의 상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고헤이다리에 시체들이 많이 쌓여 있었던 것은 지금도 강렬하게 인상에 남아있습니다.

●피폭 후 상황

와다무라에 도착했을 때는 등에는 아직 유리파편이 박힌 채였습니다. 매일 강에 가서 아내가 등을 씻어 주었습니다. 등에는 피가 콜타르처럼 굳어져 딱지 쳐 있었는데 아내가 바늘로 그 피덩어리를 때어내면 유리 파편이 함께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처럼 강에서 아내가 굳어진 피와 유리파편을 때어내는 나날이 1주일, 10일 정도나 계속되었습니다. 이미 모두 때어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아있던 파편이 10 년도 넘은 어느 해인가에 고히사카이초에 있는 외과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빼냈습니다.

와다무라에 도착해서 잠시 지난 후, 유리파편을 전부 빼내고 이제 안심된다는 상황이 되기 전 일입니다만 우리 아버지가 오노미치에서 찾아왔습니다. 오노미치에는 연락을 못 하고 있었으므로 아버지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모르고 내 장례식을 어느 쪽에서 치를 것인지 의논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내가 살아 있는 것을 알고 기뻐함과 동시에 대단히 놀라 마루에 걸터앉아 엽차만 드시고 바로 오노미치로 돌아갔습니다.

와다무라에서는 내장에 이상을 느끼지도 않고 비교적 건강하게 지내며 3 주일 정도 쉬다가 8 월 말인가 9 월 초에 히로시마로 돌아가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직장에 복귀한 후, 밤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즈음이니 9 월 중순경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하혈을 해 본가가 있는 오노미치에 가서 요양을 했습니다.

하혈을 하니까 주위사람들도 의사도 이질일 지도 모르니 격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논하고 있었습니다만 누나가 밤으로 밥을 지어 준 것을 먹고 나니 하혈이 멈추었습니다. 이상하지만 어쨌든 나는 밤밥을 먹고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노미치에서는 식사도 영양 있는 것으로 먹고 4, 5 일 요양하다가 건강해졌으므로 다시 히로시마로 돌아가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종전 후의 생활

직장에 복귀했을 때는 살 곳을 잃은 직원들도 많아 회사 5 층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자취를 하고 있었지만 후에 밥해 주는 사람을 회사가 고용해 주었습니다.

일의 내용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었으므로 총무부의 자재과에서 트럭으로 자재를 현 내 각지 발전소 등으로 나르는 것이었습니다.

1946 년에 식구들이 히로시마로 돌아와서 함께 살게 되었으며 회사 동료가 일이 끝난 후 건축자재를 사 와 에노키초에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에노키초에는 그로부터 지금까지 30 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만, 먹을 것은 아내의 처가에서 쌀을 가져다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불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입을 것이나 이부자리는 회사창고에 넣어 두었다가 모도 타버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카타를 고쳐서 속옷을 만들기도 하고 오노미치에서 이부자리를 얻어 오는 등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면서 하나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1947 년 7 월에 차녀가 태어났으나 역시 원폭의 영향이 걱정이었습니다. 아직 유치원밖에 안 되었을 때 코피가 나서 멈추지 않거나 다른 아이와 조금 다르거나 하면 원폭 때문이 아닌가 하고 걱정한 적도 있습니다.

나 자신은 1956 년에 종양의 일종인 결핵종이 생겨 백혈구가 2000, 적을 때는 1000 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체중도 65 킬로이던 것이 8 킬로 정도 줄었습니다. 1956 년 7 월부터 1957 년 9 월까지의 1 년 3 개월 동안 하쓰카이치초(현 하쓰카이치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회사도 2 년간 쉬었습니다. 7 월 7 일, 정확히 칠석날에 입원한 것입니다만, 아침밥을 먹을 때 초등학교 2 학년이던 딸이 「별님들은 오늘은 만나는 날인데 우린 아빠랑 헤어져야 하네」 라고 해서 모두가 울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큰 병도 치르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만, 십 몇 년 전인가부터 하혈을 하여 일본적십자사병원에서 피가 멈출 때까지 입원도 하고 지혈 주사를 맞거나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4 년 전에는 전립선암 수술을 받았으며 그때에 인정피폭자의 인정증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것

현재 94 세가 되지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에 단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아내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이들도 나에게 효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